

특별기고

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①

경기북부지역 자족적 발전은 서울의 과밀 해소에 기여



김정완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전략 분도

경기 북부지역 나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족적이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의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장거점전략은 지역균형개발을 통해서 북지국의 전제조건인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발

전 전략 중의 하나로서 프랑스에서 채택된 바 있다. 프랑스의 지역간 불균형은 '과리와 사막'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수도와 기타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화된 분산(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정책으로 성장거점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특정지역을 성장의 핵(growth pole)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한 후 그 효과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성장거점 전략은 J.Shumpeter의 혁신확산의 원리를 경제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성장거점전략에 있어 성장의 핵은 해당 지역에 있어 발전 추진적이고 선도적인 산업시설·공공사업·정부기관·연구소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성장의 핵은 지역발전

에 있어 자원과 인력을 흡입하는 중심력과 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키는 원심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에 의하면 나후된 경기북부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핵으로서 경기북부 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도청을 입지시킴에 따라 유관 공공시설과 함께 산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가 신설되는 경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주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도를 통해 독자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권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은 개발, 북부지역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각종 지역개발정책에 있어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대한 녹지공간이나 완충지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지역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경우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인 공간이용계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 자족적인 발전은 수도권에 인구가 산업시설의 재배치에도 공헌하게 되어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②

호주 생태마을 크리스털 워터스(Crystal Waters)의 사례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크리스털 워터스는 1988년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계획적인 생태 공동체이다.

이 마을은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리카 언덕의 구릉지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크리스털 워터스에는 259ha(약 78만평) 부지에 크고 작은 연못과 저수지들이 널려 있다.

이 공동체는 1985년 맥스 린데거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 운동가들이 계획적으로 마을 설계를 착수했으며, 87년 지역신문에 참가자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거주인들을 공모하여 문을 열었다.

처음 광고를 보고 참여한 가정은 6가구였으나 그 후 세계 각 국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찾아와 이 지역은 이제 82가구 2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이상적인 규모의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이 공동체의 전체 부지 가운데 14%는 개인 사유지이며, 80%는 공유지이며, 그리고 나머지 6%는 방문객 시설과 공동시설로 배치되어 있다. 전 세계인들 가운데 마을에 주류를 구입하면 누구나 국적을 불문하고 크리스털 워터스에 정주할 수 있다.

이곳의 정주민들은 낮에는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멜버른 등 인근 도시로 출근하는 프리랜서, 의사, 교수, 프리랜서, 그리고 교육 강사로서, 이곳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 치료사, 요가 강사, 수목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주말에는 공동식사를 하거나 주민 생일잔치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위해 함께 결속한다.

크리스털 워터스의 생활

시스템은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기존의 생활패턴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크리스털 워터스는 매일 쓰레기를 내다버리면 그 쓰레기가 다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자가 되는 일직선형적 악순환 패턴을 획기적으로 순환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 지렁이와 박테리아로 분해한 뒤 모래를 거쳐 3차례 정화하고, 남은 찌꺼기와 물도 버리지 않고 과일과 야채밭에 뿌리고, 과일과 야채를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뇨를 다시 화장실에서 정화하여 이를 또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생활화하고 있다.

빛물은 식수로, 계곡물은 샤워나 세탁, 세차용으로 쓰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름탱크에서 썩혀 퇴비로 사용되고, 합성세제는 전혀 쓰이지 않고, 집에서 나온 하수도 정원을 거쳐 자연 정화하여 저수지에 저장하고, 정수된 하수가 모이는 저수지는 너무 깨끗해 주민들의 수영장으로 쓰인다.

또한 크리스털 워터스는 주민들이 기거하는 집, 저수지, 도로, 정원, 초치, 용수 공급 등을 철저하게 퍼머컬처(permaculture)의 순환 원리에 적용하고 있다.

이곳의 건축물의 재료들은 모두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흙과 나무를 쓰되, 부득이한 경우 전체 건축재료의 5%이내에서만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흙과 나무로 지은 집, 양철로 지은 집, 캠핑카를 세워 놓은 집, 흙으로 지은 원형 집, 지붕 꼭대기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빛이 집안으로 잘 들어오는 집, 지붕에서 식물을 키우는 옥상농부가 잘 된, 소위 하층정원의 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날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보존할 수 있게 태양열을 최대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로 설

계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자연 그대로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지만 집 모양이나 구조시설물들은 현대적으로 설계되었다.

크리스털 워터스는 개발한계에 이른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현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대표적인 대안적 미래가 단지 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퍼머컬처 정신은 단순히 자연으로 복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 정신은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한 곳으로 뽑아내는 현대산업사회의 일직선형적 시스템과는 달리, 자연과 인간이 서로 순환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적극적인 실천운동이다.

또한 이 실천운동은 무공해 농업과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생명운동이다.

이 생명운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목표로 하는 농업과 문화의 연속성을 위한 계획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생태계 안정성과 공동체 질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크리스털 워터스에는 여려 장, 단기 환경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이자 공동식당인 키친 내에서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토론학습, 생태교육, 요가, 건강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 내규를 만들어 키친에서 매주 두 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매년 대표를 뽑고 대표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동체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조화롭게 하는 자연인의 방식을 따르면서 숲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외우는 것보다 원시적인 유틸리티스 나무들을 헤치면서 자연과의 철저한 대화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세이 92

앙드레 지드와 노벨 문학상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다.

그때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껏 시를 낭송했다. 시 낭송을 들은 선생님은 그에게 "너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어"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는 학생'으로 불려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워 마침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인내와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2008 초등 좋은 수업 만들기 대회' 수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공통점이 있다. 소분단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소 분단 대표는 거의 여학생이라는 사실이다.

소 분단활동을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해 보았는데 남학생들은 소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었고, 반면에 여학생들은 활기차고 당차게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성(性)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

을 하다보면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필자로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성(性)의 본능까지 저버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똑똑해서 맡은 분야에 진취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역할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중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여기서 담임선생님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잘하는 학생에게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소 행동이 느리고 뒤떨어질지라도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결에서 보듬어 주고, 앙드레 지드의 선생님처럼 칭찬과 격려를 해 준다면 모든 학생에게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창의성이 있으며 그 창의성을 발휘시켜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최근 우리 대학들도 정부와 사회 각종의 도움을 받아 노벨상 수상자를 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세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게 되는 과학자

는 국내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소리가 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에 학교 갔다가 수업을 마치면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늦은 저녁까지 온종일 공부한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보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창의적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사 확보다. 요즈음 서울교대의 수능성적이 서울대 인문계열보다 높다고 할 정도로 교사들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얼마나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주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가?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학생을 인제로 개발하는 최고 수준의 교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직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또한 필요하다.

祝 포천신문 창간 제19주년 기념식

2008년 한해동안 큰 도움을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포천신문 창간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포천의 정문지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속에 이번 행사는 포천신문 가족들만 참석대상으로 하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오후6시
- 장 소 : 늘봄 컨벤션 웨딩뷔페(031)543-2008
- 행사문의 : (031)542-9888
- 창간일 : 1990년 1월 15일  
(창간기념식은 1개월 앞당겨 실시하기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200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 포천신문 대표 이사 최호열
-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이보용
-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박승찬
-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장 김기정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박혜자
-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박노설
-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단장 남충현

